

셰일가스, 에너지 역학구도 바꾼다!

수출의존도 높은 국가는 약소국 전략 ... 러시아도 정책 변경 불가피

셰일가스(Shale Gas) 등 새로운 에너지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전통 에너지 생산국들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등 세계 역학구도가 바뀌고 있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가 1월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으로 5-10년 안에 에너지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더 이상 에너지 판매에서 막대한 수입을 거두지 못하고 힘이 약해질 것이다.

셰일가스를 추출하는 기술이 대중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물과 모래, 화학약품을 섞은 혼합액을 고압으로 분사해 셰일가스를 뽑아내는 수압파쇄법이 최근 들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준이 된 것이다.

수압파쇄법이 널리 도입된 것은 불과 5년 전부터지만 이미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2008년의 4분의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인해 미국의 석탄 화력발전이 줄어들고 자동차 수십만대가 연료를 휘발유에서 가스로 바꾸고 있다.

미국의 석유 소비량 중 해외수입 비중도 2005년 60%에서 2013년 45%로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수요 감소는 세계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른 영향으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 협상력이 강화됐다.

러시아는 최근까지 세계 흐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전체 국가 수입의 60%가 에너지 수출에서 나오는 러시아로서는 천연가스 판매 감소는 정치적 재앙을 뜻하기 때문이다.

과거 소련 붕괴나 보리스 옐친의 몰락 등 변곡점이 됐던 굵직한 사건이 모두 에너지 가격 하락과 관련돼 있다.

러시아는 외부환경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영기업 가스프롬(Gazprom)이 중국수출을 늘려서 유럽 매출이나 수익 감소를 만회하는 방안을 시도해볼 수 있으나, 문제는 중국이 협상 상대로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셰일가스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비전통적 에너지 추출 기술 확산을 억제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거꾸로 기술 전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국가는 에너지 수출국의 횡포에 덜 휘둘린다고 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엑슨모빌(ExxonMobil)에 로스네프트(Rosneft)와 제휴하는 대신 유럽에서 셰일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은 폴란드에서 철수하도록 하는 등 외국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1/11>